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15년 3월 12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차장 장정수

Tel : 759-4066 Fax : 759-4485 E-mail : cschang@bok.or.kr

공보관 : Tel (02) 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게 된 배경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00%에서 1.7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도 완만하나마 개선 움직임이 나타났으나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률								주요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 국내금리 ¹⁾					
(전기비연율, %)								(기말기준, %)					
		13.3/4	4/4	14.1/4	2/4	3/4	4/4			14.12월	15.1월	2월	3.11일
미	국	4.5	3.5	-2.1	4.6	5.0	2.2	미국		2.17	1.64	1.99	2.11
유로지역		0.7	1.1	1.1	0.3	0.7	1.3	독일		0.54	0.30	0.33	0.21
영국								영국		1.76	1.33	1.80	1.81
일	본	1.4	-1.2	5.1	-6.4	-2.6	1.5	브라질		12.36	11.96	12.29	13.15
중	국 ¹⁾	7.9	7.6	7.4	7.5	7.3	7.3	인도		7.86	7.69	7.73	7.76
주: 1) 전년동기대비								주: 1) 10년물					
자료: 미 상무부, Eurostat, 일 내각부, CEIC								자료: Bloomberg					

[실물경제]

-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석유제품 등의 단가하락 등에 기인하여 감소하고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뚜렷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나 당초에 전망한 성장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 지속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실물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2013	2014	14.1/4	2/4	3/4	4/4	14.11월	12월	15.1월	2월
GDP 성장률	3.0	3.3	3.9	3.5	3.2	2.7	-	-	-	-
GDP 민간소비	2.0	1.7	2.5	1.5	1.5	1.4	-	-	-	-
소매판매	0.7	1.7	2.4	0.8	1.5	1.9	1.0	4.6	-3.1	..
(S.A, 전기비)	-	-	(0.2)	(-0.2)	(1.3)	(0.4)	(2.1)	(1.5)	(-3.1)	..
GDP 설비투자	-1.5	5.9	7.3	7.7	4.3	4.2	-	-	-	-
설비투자지수	-0.8	5.2	7.5	6.7	1.5	5.3	10.4	15.0	14.3	..
(S.A, 전기비)	-	-	(-4.0)	(1.7)	(-0.9)	(8.5)	(11.4)	(1.9)	(-7.1)	..
GDP 건설투자	6.7	1.1	4.3	0.2	2.6	-1.8	-	-	-	-
건설기성액	10.2	-0.8	6.6	0.1	-1.9	-5.9	-9.4	-3.2	-2.9	..
(S.A, 전기비)	-	-	(1.0)	(-0.4)	(-2.7)	(-4.0)	(-1.6)	(0.3)	(6.1)	..
수출(통관)	2.1	2.3	1.6	3.2	3.6	0.9	-2.7	3.1	-0.7	-3.4
(일평균, 억달러)	(20.5)	(21.1)	(20.7)	(21.9)	(20.7)	(21.3)	(20.7)	(20.6)	(19.2)	(21.8)
제조업 생산	0.7	0.1	0.7	0.4	1.2	-1.9	-3.5	1.0	1.7	..
(S.A, 전기비)	-	-	(-0.2)	(-0.7)	(0.1)	(-1.0)	(0.5)	(3.3)	(-3.7)	..
서비스업 생산	1.5	2.2	2.0	1.5	2.6	2.6	2.2	3.2	2.4	..
취업자수 증감 ¹⁾	385.7	533.0	729.4	463.7	516.5	421.9	438.3	421.6	347.2	..
(공공부문 ²⁾ 제외)	(371.4)	(541.2)	(703.5)	(461.8)	(527.3)	(471.6)	(481.3)	(476.3)	(398.1)	..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 천명(연간 및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물 가]

- 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되고 석유류 제외 공업제품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전월의 0.8%에서 0.5%로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2.4%에서 2.3%로 소폭 하락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

	(전년동월대비, %)				
	14.10월	11월	12월	15.1월	2월
소비자물가	1.2	1.0	0.8	0.8	0.5
(전월비)	(-0.3)	(-0.2)	(0.0)	(0.5)	(0.0)
▪ 농축수산물	-1.9	-0.1	1.0	0.7	1.1
(농산물)	(-7.7)	(-6.2)	(-4.1)	(-3.2)	(-2.3)
▪ 공업제품	0.6	-0.1	-0.6	0.1	-0.8
(석유류)	(-6.2)	(-7.7)	(-11.4)	(-20.4)	(-24.3)
(석유류제외)	(1.9)	(1.4)	(1.5)	(4.2)	(3.8)
▪ 서비스	1.7	1.6	1.6	1.5	1.5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1.8	1.6	1.6	2.4	2.3

- 주택매매가격의 오름세는 소폭 확대되었으며 전세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택가격상승률

	(전월대비, %)				
	14.10월	11월	12월	15.1월	2월
주택 매매가격	0.3	0.2	0.2	0.1	0.2
▪ 수도권 ¹⁾	0.3	0.1	0.1	0.1	0.2
(서울)	(0.2)	(0.1)	(0.0)	(0.1)	(0.2)
▪ 광역시 ²⁾	0.4	0.4	0.4	0.3	0.4
▪ 지방 ³⁾	0.3	0.2	0.2	0.1	0.1
주택 전세가격	0.3	0.3	0.3	0.3	0.3
▪ 수도권 ¹⁾	0.4	0.3	0.4	0.3	0.4
(서울)	(0.4)	(0.3)	(0.4)	(0.4)	(0.5)
▪ 광역시 ²⁾	0.3	0.3	0.3	0.3	0.3
▪ 지방 ³⁾	0.2	0.1	0.1	0.1	0.1

주: 1) 서울, 인천, 경기 2)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3) 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자료: 국민은행

[금융시장]

-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최근 주요국 주가하락 등에 영향받아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 엔화 약세에 따른 동조현상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원/엔 환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상승 후 하락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리, 주가, 환율¹⁾ 및 가계대출

	14.10월	11월	12월	15.1월	2월	3.11일
CD(91일)금리(%)	2.14	2.13	2.13	2.12	2.10	2.10
국고채(3년)금리(%)	2.14	2.07	2.10	1.97	2.03	1.91
KOSPI	1,964	1,981	1,916	1,949	1,986	1,981
원/달러 환율	1,069	1,108	1,099	1,094	1,098	1,127
원/100엔 환율	964	937	913	928	922	928
은행 가계대출 ²⁾ 증감(조원)	6.9	6.9	6.6	1.4	3.7	..

주: 1) 기말기준

2) 모기지론 양도 포함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세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유가 및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경제 내의 유희생산능력 추이, 가계 부채 및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